



미 금융회사, 정부 디폴트에 대비한 대응방안 모색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정부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의회 합의가 지연되고,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- 은행과 뮤추얼 펀드 등은 보유 중인 국채의 가치하락 가능성을 평가 중이며, 헤지펀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현금보유를 확대하고 있음.
- 신용평가회사는 보험회사나 주정부 등 연방정부의 디폴트 및 신용등급 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감.
-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임박하면서 많은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미국의 신용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, 의회의 합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신뢰도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시 AAA 등급 이하의 채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규정에 의해 국채의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채권의 대량 매도가 발생한 바 있음.

■ 한편,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회사인 A.M. Best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후,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시 보험회사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.

- A.M. Best는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으며, 정부부채 한도 증액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- 또한, 생명보험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악영향은 손해 보험회사보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함.

(NY Times 등, 7/20)